

신생아 특례 디딤돌·버팀목 대출 출시 후, 일주일 만에 9.6천건·2.5조원 신청

- 실수요자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하여, 2월 4일까지 총 9,631건, 2조 4,765억원을 접수받았다.
 - 전체 접수분 중,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,588건·2조 945억원,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,043건·3,820억원으로,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으며,
 - 디딤돌 대출 중, 대환 용도는 6,069건·1조 6,061억원,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,519건·4,884억원으로,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.
 - 버팀목 대출 중, 대환 용도는 1,253건·2,212억원,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·1,608억원으로,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.
-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,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.
-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,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 -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,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부서 < 총괄 >	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전성배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정태현 (044-201-3339)
<공동>	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	책임자	처 장	황영미 (051-998-2240)
		담당자	팀 장	조원재 (051-998-2241)

참고

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(1.29~2.4 18:00)

(단위 : 건, 억원)

구 분		건 수(비중)		금 액(비중)	
	합 계	9,631	(100%)	24,765	(100%)
디딤돌 대출 (구입자금)	소계	7,588	(79%)	20,945	(85%)
	대환	6,069	(63%)	16,061	(65%)
	신규	1,519	(16%)	4,884	(20%)
버팀목 대출 (전세자금)	소계	2,043	(21%)	3,820	(15%)
	대환	1,253	(13%)	2,212	(9%)
	신규	790	(8%)	1,608	(6%)

※ (유의사항) 대출 신청분이 모두 집행되어 실적이 되는 것은 아님